

LG, LG-Caltex가스 그룹계열 분리

LG전선 · 극동도시가스 · LG니꼬동제련 포함 ... LGEI LGCI 통합

LG그룹이 LG전선, 극동도시가스, LG-Caltex가스, LG니꼬동제련 등 4사를 계열에서 분리해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창업고문 일가에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다고 4월3일 밝혔다.

4사 계열분리는 2003년 LG그룹 통합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비주력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구태회 등 창업고문 3명과 가족들은 이를 위해 4월3일 LG MRO, LG투자증권, LG석유화학, LG-CI 등이 보유하고 있는 LG전선 주식 433만8659주(13.5%)와 LG상사가 보유한 극동도시가스 주식 138만주(23%)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LG칼텍스가스가 자사주 펀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95만7660주(14%)도 함께 인수했다.

창업고문 3명 일가는 앞으로 LG칼텍스정유가 보유하고 있는 극동도시가스주식 111만주(18.5%)와 LG칼텍스가스 주식 249만6000주(36.4%)에 대해서도 합작파트너인 미국 Chevron Texaco와 협의를 거쳐 매입할 계획이다.

LG니꼬동제련은 LG전선이 1982만4280주(35%)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경영권이 함께 창업고문 일가에 넘어갔으며, LG전선은 LG상사가 보유한 LG니꼬동제련 주식 849만6120주(15%)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LG는 상호 지분정리와 출자해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03년 말까지 4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계열관계를 완전 해소할 계획이다.

이로써 구본무 회장 친동생인 구본능 회장이 운영하는 희성그룹 등에 이어 구씨 가문 소유의 방계그룹이 또 하나 탄생하게 됐다.

LG전선도 LG 계열사 주식처분을 위해 4월3일 LG건설 주식 245만3,699주(4.8%)를 구본준 LG필립스LCD 사장과 허창수 LG건설 회장 등 LG 개인 대주주들에게 매각했다.

또 앞으로 데이콤 17만6226주(0.7%), LG전자 270만9653주(1.7%), LG에너지 474만주(20%), LG이노텍 141만3600주(16.4%), LG백화점 116만주(3.3%), LG선물 80만주(20%) 등 LG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할 예정이다.

LG는 2003년으로 예정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앞두고 주력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주력 계열기업에 대한 사업구조조정 차원에서 4사를 계열분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4사 외에 계열분리설이 나돌고 있는 LG건설과 LG칼텍스정유, LG유통을 포함해 나머지 계열사들은 모두 2003년 출범하는 통합지주회사에 사업자회사로 편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LG는 LGEI(전자부문 지주회사)와 LGCI(화학부문 지주회사)의 통합을 앞두고 비주력 계열사에 대한 사업구조조정이 일단락됐고 나머지 계열사의 분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LG는 앞서 1999년 11월 구자경 명예회장의 사촌인 구자원 일가에 LG화재해상보험을 분리시켰고, 2000년 3월에는 구자두 일가에 LG벤처투자를, 9월에는 구자학 일가에 아워홈을 계열 분리했다.

한편, LG는 LG전선과 극동도시가스, LG칼텍스가스 LG건설 등 4개 상장사에 대한 주식거래를 4월3일 시장 가격인 주당 각각 1만9350원, 1만3800원, 1만7600원, 1만5600원에 자전거래 방식으로 실시해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LG는 계열분리를 위한 향후의 모든 주식거래시 상장사에 대해서는 시장과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비상장사 주식거래도 상속세법 등 관련 법규와 평가기관에 따른 공정한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투명하게 할 방침이다